

불신앙의 옛 틀에서 절대감사의 새 틀로

- 추수감사절예배-

시편 136:1-26,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평생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마음,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되며, 해답과 응답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다. 오늘 증거될 말씀을 통해서 잊고 있던 감사가 회복되는 주간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기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Puritan)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선교의 열매를 증명해주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날짜를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추수감사절 날짜의 변화는 1789년에 워싱턴은 추수감사절을 11월 26일로, 1864년 링컨이 11월 넷째 주간으로, 1941년에 미국 의회는 지금의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결정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때문이었다. 102명의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 스피드웰(Speedwell)호와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 나 물이 새 다시 귀항했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중부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63일간 5,440km의 멀고도 위험한 항해 끝에 닻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에서 출발했던 항구의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시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들짐

승들의 위협, 거할 집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 해(1620~1621) 겨울, 2-3개월 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 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사람들이 땀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 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경건한 청교도들은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그들의 기도 속에서 성장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한국도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은 구원의 감사로 모든 것을 끝낸 사람들이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천년의 응답을 보장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청교도들의 영혼에 담겨 있었던 그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린다.

1.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펴보면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1) 지금 있는 그 환경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좋은 환경에서도 그 사람은 감사하지 못 할 것이다. 에덴에서의 타락사건은 감사하지 못했던 인간의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바랄 것이 많은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를 바란다.

(2)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울 왕은 평생 다윗을 시기 질투하며 살다가 전쟁터에서 자살하여 죽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용모도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9장 2절이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나 감사함을 몰랐던 사울왕은 악령이 임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 사무엘상 19장 9절-10절이다.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울은 감사를 상실하자 최악의 사람

이 되고 말았다.

(3) 이스라엘 백성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 말씀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감사할 수 있는 영적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4) 깨끗함을 받은 아홉 문둥이가 감사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내가 원하는 목적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이와 같은 상태일 것이다. 병이 치료 된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을 치료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자녀보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집보다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음식보다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

2.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은 주신 새 틀인 감사로 승리한 인물들에 대하여 나누고자 한다.

(1) 아브라함은 미래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7절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주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2) 구약시대에 행해진 삼대 절기도 모두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감사에 대한 예물을 함께 드렸다.

(3)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136편의 기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었다.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의 영혼에서는 끊임없이 감사의 작품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4)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5)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뜻은 평범한 것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새 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6)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부분의 편지에는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을 보면 자신에게 주신 축복들에 대하여 감사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에 대한 감사였다.

3. 오늘은 큰 세 번째로 감사의 조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미션도 드리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다. 김치를 주신 것 감사해야 하겠다. 매운 떡볶이를 주셔서 감사해야겠다. 내 얼굴이 나도 못 알아볼 정도로 예쁘게 나오는 스마트폰을 주신 것 감사해야겠다.(웃음)

(2)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 오직 예수를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기 바란다. 또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란다. 이번 한 주간에는 미션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결론이다. 오늘은 감사와 CVDIP를 적용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언약이다. 복음과 언약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인가. 감사이다.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다. 실패, 죽음, 고난, 핍박, 질병도 감사이다. 거기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재창조의 응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

2. 비전, Vision이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237선교에 대한 참된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선교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갖게 되지 않겠는가. 전 세계의 교회 문이 닫고 있는데 우리들이 일어나서 무너진 세계의 교회를 살리는 비전을 가져야겠다.

3. 꿈, Dream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꿈을 성취시킬 수 있는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은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환경, 직장에 가도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받을 응답도 못 받게 된다. 여러분이 계속 감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감사의 작은 조건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4. 이미지, Image이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완전 감사, 절대 감사의 제자가 되도록 이미지를 그리면서 우리 자신, 가족,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5. 실천, Practice이다.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도 습관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시대적인 응답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한 주간도 감사 속에서 숨겨진 영적 비밀을 발견하고, 절대 감사, 절대 제자의 언약 속으로 더 나아가는 한주간이 되기를 축원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간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응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절대 감사의 절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